



국가재정지원사업 ‘중추’로 떠오르는 부산과학기술대 연간 70억원 재정지원 수혜...지역산업 연계 인력양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강기성)는 대학과 연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거 선정돼 연간 70여 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예비선정된 것을 비롯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특성화 전문대학육성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및 각종 연구프로젝트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기본역량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 187곳,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평가해 상위 64% 대학(대학 120곳·전문대 87곳)이 지난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최근 3년간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결과를 합산해서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과학기술대는 자율적인 정원조정과 함께 2019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각종 특수목적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각종 정부의 장학제

도 이용에 제약이 받지 않는다.

지역산업체 연계 산학협력 '허브대학'

지난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LINC+는 Post-LINC로 불리던 LINC 사업의 후속 사업과 신규 추진되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이 합쳐진 것으로, 지난해 기준 총 3천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다. 부산과학기술대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에 선정되어 1차 연도 19억원 등 5년간 약 95억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았다.

올해도 융합기계계열, 자동차공학계열, 호텔관광경영과, 비즈니스경영과, 호텔외식조리과, 미용과 등 11개 학과에 10개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과정을 개설했다. (주)위커피, (주)한성모터스, (주)서원유통, (주)메스코, 누네빛안과 등 105개 기업과 총 200명의 채용약정을 마친 상태. 또 기업체 및 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업 관계자 등 수요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들의 직무분석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선발, 교육운영, 취업지원 전 과정에서 산업체 인사의 참여 비율을 확대해 사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 자동차공학계열 자작자동차동아리에서 만든 자작자동차(왼쪽)와 BIST 레이싱팀의 경주용차(오른쪽) 2 위커피호텔 등과 LINC+사업연계협약을 맺은 호텔외식조리과 학생들이 푸드스타일링 실습을 하고 있다.

고용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최고등급 선정

고용노동부와 부산과학기술대가 공동 주관하고 동주대학교-부산여자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은 전국 각 지역 청년구직자들을 위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대학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부산과학기술대가 서부산·북부산권역의 공학계열 융합부품 소재 산업 거점으로, 동주대학교와 부산여자대학교는 인문사회계열과 여대생을 위한 지식 인프라 서비스산업 거점으로 각 지역 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간 6억원, 5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역 현장 중심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3개 대학 1만여 명의

재학생과 지역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계해 차별화된 취업지원체계를 구축, 청년구직자와 기업 간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과학기술대 이색학과 & 유망학과 1 이색학과로는 재활운동건강과가 꼽힌다. 한국사회의 초고령화와 웰빙문화의 확산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인간의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건강·재활·보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설되었다. 생애 주기별 '건강·재활·보건' 관련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향후 노인전문 과정을 개설·운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대한민국 '건강·재활·보건 新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도해 주는 개인 트레이너,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 트레이너와 나아가 손상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회복을 통하여 시합으로 복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재활운동 트레이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부산지역은 경남·울산의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의 부품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배경에서 유망학과 반열에 오른 자동차공학계열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창의력과 최신기술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부산과학기술대는 재학생이 드라이버와 미케닉으로 직접 참여하는 'BIST RACING TEAM'을 창단하고 대학 아마추어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자동차연맹(FIA) 공인 인터내셔널 시리즈 대회에 참여 중이다.



강기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능동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창의력·상상력 키워줘야”



◎ 대학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인데요?

로봇과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은 오랜 기간 과학의 발전으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융합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문화를 창출해가며 과학기술과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산업혁명이 기계, 에너지, 컴퓨터, 인터넷 등 특정한 핵심기술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각 산업/과학 분야의 축적된 지식, 기술, 아이디어 등의 융합에 의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견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각 기술에 대한 융합적 혁신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우리의 실생활을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과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학문 간 융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업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표준화된 직무교육을 벗어나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또 토론과 프로젝트수업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을 향상하는 등 교육체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40%가 넘는 취업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등 고용시장의 냉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외부사업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최근 사재 3억5천만원을 대학에 기부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은 대학 경쟁력 확보의 근간이 됩니다. 학생 중심의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만들어 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절벽과 대학 간의 무한경쟁 속에 밤낮으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 교직원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대학의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변화는 전문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성과 중심의 대학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전 교직원의 하나 된 의지를 모아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❶